

KEP, 10월 신입사원 공개채용

로레알 · 한국안센 · 셀트리온도 ... 외국기업 10월 공채 줄줄이

10월 들어 외국기업들의 채용이 잇따르고 있다.

취업·인사 포털 인크루트는 외국기업 30사를 대상으로 하반기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70%인 21사가 채용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월12일 발표했다.

채용규모는 총 349명으로 평균 17명 내외의 소규모 채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IBM은 10월13일까지 신입 입사지원을 받는데, 모집분야는 영업, 글로벌서비스, 유비쿼터스 컴퓨팅 연구, 업무관리 등이며 연구부문은 관련분야 경력자 또는 석·박사 학위 소지자를 우대할 예정이다.

화장품 메이커 로레알코리아는 10월 14-31일 인턴사원 채용에 나선다.

로레알코리아의 정규직 입사를 위해서는 인턴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채용절차는 그룹 토의 및 면접, 워크숍 등으로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2006년 1-2월 2달간 인턴으로 근무하게 된다.

한국안센은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에서 근무 가능한 영업직 사원을 10월21일까지 모집한다.

채용규모는 40-50명 선으로 사무직 사원도 영업사원 중에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입사를 위해서 영업직이 필수관문이다.

이밖에 셀트리온은 10월21일까지 하반기 공채 입사지원을 마감하며,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 TNS 코리아 등도 10월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

인크루트 이광석 대표는 “경력직 중심의 채용을 하던 외국기업들이 최근에는 신입 공채에도 눈을 돌리고 있으며, 외국기업들은 실무능력이 뒷받침되는 인재를 원하기 때문에 지원분야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키워 도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화학저널 2005/10/13>